

## IT 대·중소기업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

통신사업자와 IT중소벤처업체가 장비구매 및 납품관계 등에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월 21일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KT, SKT 등 7개 통신사업자 사장과 IT중소·벤처업체를 대표하는 IT벤처기업연합회장,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사업자와 IT중소·벤처기업간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경 KT 사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남중수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윤창번 하나로텔레콤사장, 정홍식 데이콤 사장과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 회장, 홍미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공동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기술평가 중심 낙찰제 도입, 현금결제 기준 상향 조정 등의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경제 양극화와 맞물려 IT산업 성장에 기여를 한 IT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IT생산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나 IT중소·벤처기업이 전체 IT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IT SMERP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펼쳐 왔다.

이날 체결된 합의서는 우선, 납품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하였던 가격평가 위주의 저가낙찰제를 개선해 기술평가 중심의 종합평가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또 계약예정자의 원가산정 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경쟁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로 하였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통신사업자의 부품 수요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요예보제도 시행된다. 이는 납품업체들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리 많은 부품을 생산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납품된 장비에 대한 무상 A/S기간과 무상 A/S기간 종료 후 지불하는 유상의 수리비용(유지보수비) 산정에 납품업

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우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A/S기간 단축, 유지보수비 상향조정 등 우대방안을 강구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치열한 납품경쟁으로 인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생산업체간의 직거래를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경영사정이 어려운 납품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현금결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어음결제기간도 최대한 단축키로 하였다.

납품업체의 애로를 듣고 처리해주는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도 사업자별로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우선 배치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납품 중소기업은 통신사업자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정통부는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통신사업자는 저가납품을 통해 원가절감을 추구하고 IT중소벤처기업은 수익성 등의 사업모델이 부실한 상태에서 유사한 기술시장에 진입한 결과 납품을 둘러싸고 저가 입찰, 과당·출혈경쟁이 벌어지는 등 기업간 서로 불신이 증폭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진 장관은 또 “IT산업이 발전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정부는 분기별로 개선현황을 발표해 합의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와 중소기업뿐 아니라 SW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통신사업자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협력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IT중소벤처기업은 안정된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나아가 서비스업체와 제조업체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경제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